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日支國交調整交涉開始
東亞新秩序가 出現

一

今春以來 準備中이던 日支國交調整交涉은 五日 南京 國民政府에서 開始되었다. 日本側에서는 四月二十三日 南京 派遣된 阿部全權大使를 首席으로 하여 日高首席隨員以下 六名이 出席하고, 支那側에서는 汪主席以下 周佛海, 梁鴻志, 陳公博 等이 出席하여 交涉이 進行된다. ……

二

今次交涉의 國交調整의 原則에 對하여는 이미 善隣友好, 共同防共, 經濟提携의 近衛三原則이 樹立되었고, 昨年十二月에 成立한 日支國交調整의 大體를 알 수 있거니와 ……

三

勿論 이때까지 交涉의 遲延된 것은 그 準備에 時日을 要한 것이라 ……

歐洲戰爭과 印度
大英帝國의 苦悶까지

一

英國의 對獨宣戰布告以來 勃發을 傳하는 印度國民會議派는 最近 極端派 보스氏의 逮捕 간디주의 印度國民會議派의 態度 ……

佛·對英國交斷絕決定

【쥬네브五日發同盟】 위시로부터의 報道에 依하면 佛國政府는 五日 르브랑大統領司會下에 緊急國務會議를 開催하고 英國과의 外交關係를 斷絕하기로 決定하고 同日 이를 發表하였다

事變處理, 國防强化
重點主義로 貫徹
明年度豫算編成方針

【東京電話同盟】 政府는 五日閣議에서 明年度豫算編成에 關한 根本方針을 決定하였다 ……

一, 旣定經費에 對하여는 根本的 再檢討를 加하여 ……

櫻內藏相의 豫算編成方針說明

旣定經費節約等 編成方針의 特徵

外交對策에 關해 小磯拓相進言

中央農林協會幹事會

四相會議

滿洲國皇帝
一億國民奉送裏
大阪港御發御歸國

【大阪電話同盟】 紀元二千六百年을 奉祝하옵시고저 御來訪하옵신 滿洲國皇帝陛下께옵서는 ……

歷史的感激裡에
日支交涉開始!
南京國民政府會議室서

【南京五日發同盟】 日支兩國新關係를 律하는 條約締結의 交涉은 五日午前十時부터 南京城內 國民政府會議室에서 ……

第一回會議終了後 共同콤뮤니케發表

六日에도 續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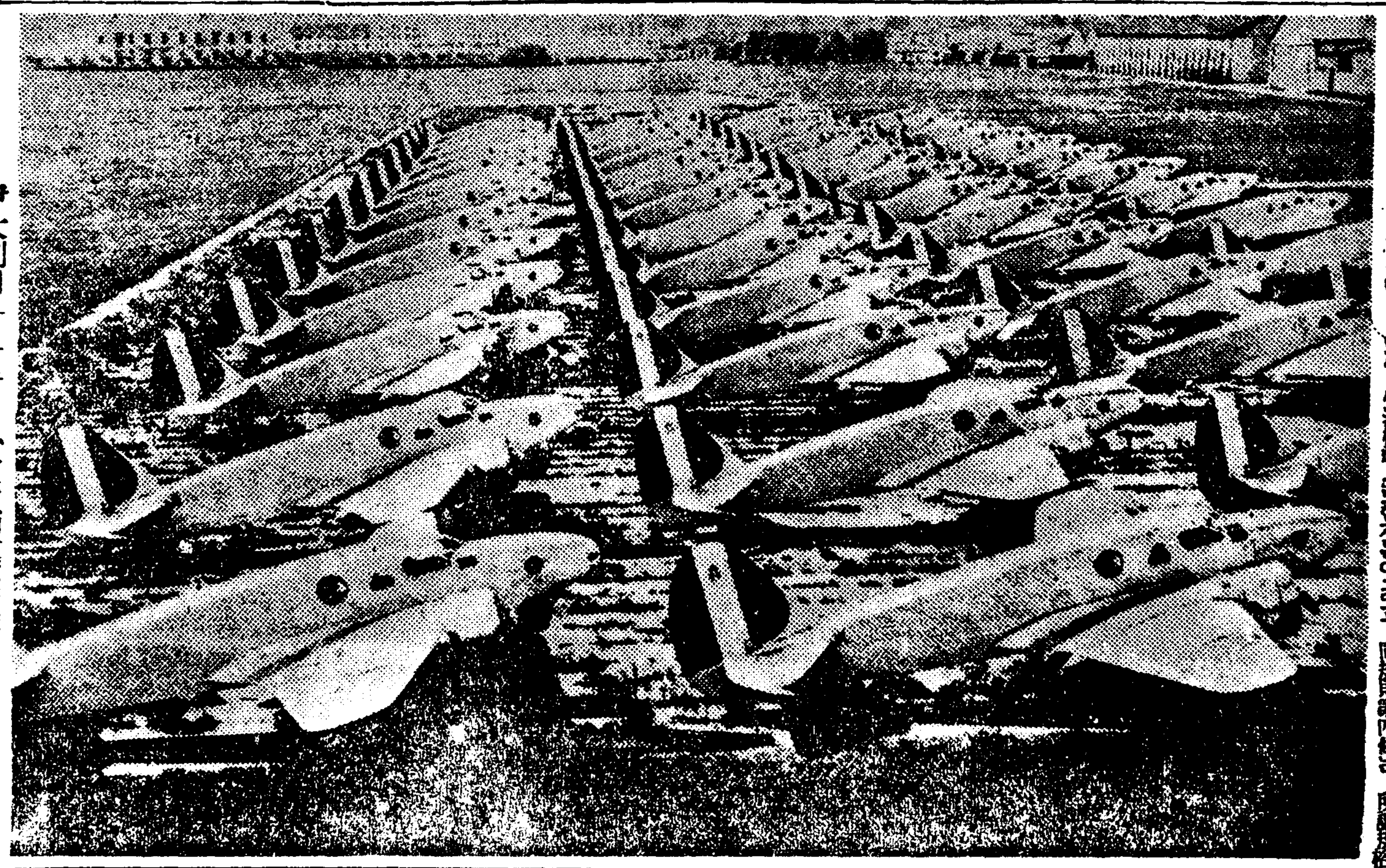
英獨和平說繼續
獨의 對英電擊作戰의 前哨戰?

和平打診說 獨官邊否定

취칠英首相 戰爭完遂强調

獨伊蘇三國意向打診 勃國, 도地方問題로

英의 佛艦隊砲擊
惡逆無道한 行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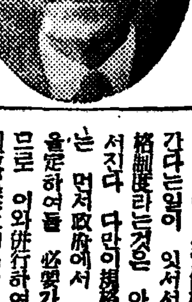


伊太利의 카프로니 一三五型爆擊機陣列

奢侈品製造販賣
制限規則今日公布

新生活建設第一步

【東京電話同盟】 今番政府가 新生活體制의 第一步로 ……



藤原商相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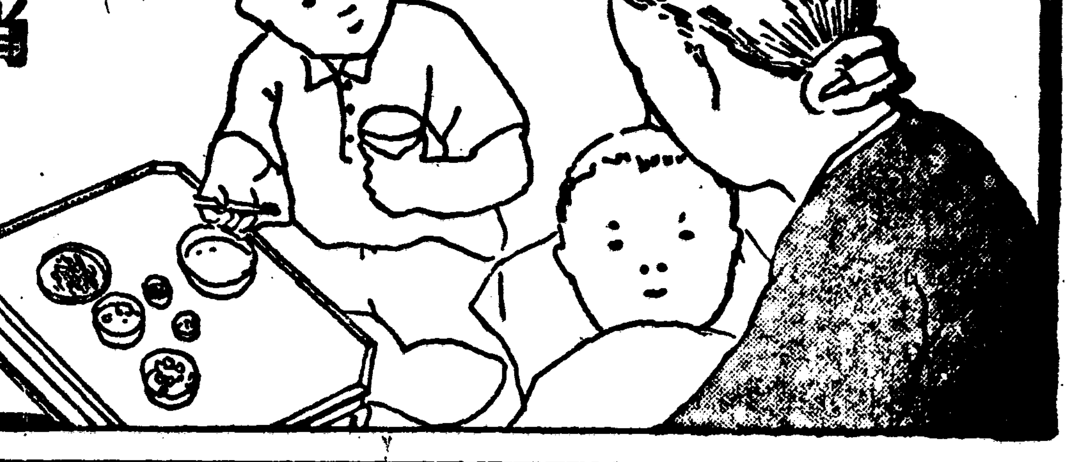
交戰回數一七八
江南北地區掃蕩戰果

【上海五日發同盟】 上海杭州를 連結하는 三角地帶及長江沿岸安慶을 中心으로 하는 江北江岸地區의 掃蕩戰에서의 六月中戰果는 다음과 같다

交戰回數 一七八 敵總兵力三七, 〇〇〇 敵遺棄死體 三, 六一〇 捕虜三四三 …… 其他多數

辭令
(七月五日發令)

市況 (五日)



散ーヒービーベ

消化不良에 설사와 小兒의

夏節은 여러분의 赤信號 胃腸의 衛生이 第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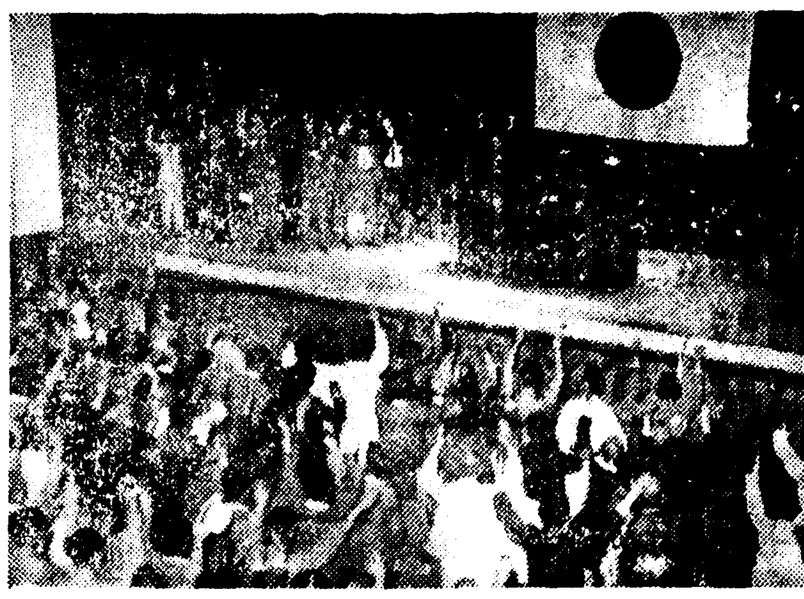
별서 夏節이 되었읍니다. 일로부터 每日같지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

定價 貳拾錢 參拾錢 五拾錢 壹圓

製造發賣元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株式會社 新井藥房

北鮮代理店 淸津府浦項洞 株式會社 淸津新井藥房

全鮮各藥店에 있읍니다



援蔣의敵性國家를 東亞로부터驅逐!

豪雨로府民館에서獅子吼

排擊敵性國家援蔣國民大會

동아의 평화를 어지럽게 하고 …

石築崩壞로三棟全壞

四名即死三名重傷

昨夜、三淸町孟峴미테慘事

오일오후 다섯시쯤에 부내삼청정 맹현동산의 노괴삼십미돌에는 가축이모두 열몇인데 여엇고 남아지는 위험하여서 윤 … 쪽 삼십미돌되는 석축이 무너저 … 서진세채가 너머지는 동시에네 … 명은 무참히 즉사하고 세명은 … 중상을 당하였다 죽은사람은 … 청정 육십이번지에 사는 …

漢江水位

漢江 八米突 (五日午後十一時現在)

龍頭川決潰危險

土幕民은避難·警防團員警戒

西署管內의水害

安岳溫泉에火災

列車小兒轢殺

自動車交通杜絕

平澤과安城、廣州에도

오일저녁 경기도경찰부에 들어온 소식을 들은면 이날저녁여덟 시반부터 평택(平澤)안성(安城) 사이의 자동차교통은 막다 또 광주(廣州)군내에도 자동 차길이 험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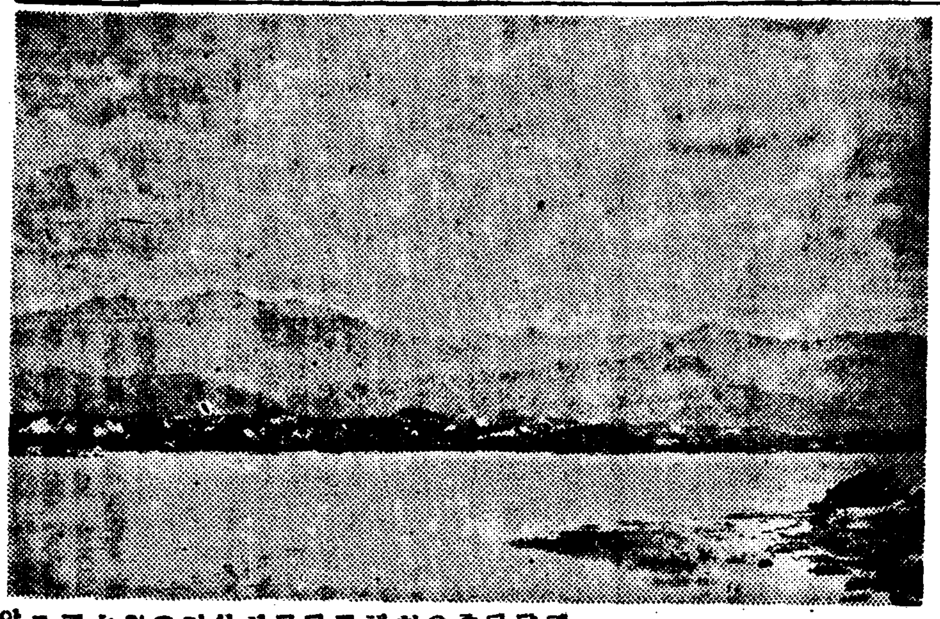
…今日… 天氣… 雨又누曇…

鴨綠江에少年溺死

道內의移秧好績

水不足의安城外六郡도完畢

利川	五五、六미리
龍仁	五六、七미리
廣州	三六、〇미리
水原	三二、〇미리
安城	六八、〇미리
平澤	五四、〇미리
始興	八〇、三미리



私有林濫伐防止

全部許可制로統一

犯則者는斷乎嚴罰

歸任林業局長談

총독부에서는 정정심하여가고 …

豐年은確實하나

混食節米는繼續

東亞를全體로食糧對策緊急

사진상은 … 사진하는 …

前人未踏의泰山峻嶺

風景絕勝·古蹟도豐富

本社主催 第五回 雪嶽山探險前記

설악산(雪嶽山)은 아직것 우 …

機械化國防協會

軍官民協力으로創立

五日、公會堂에서創立總會

宣言

決議

昭和十五年七月五日

宣誓文

全米選拔代表團來京

第七月末來京

마스베어TKO勝

庭球大會停頓狀態

對가련쯤試合

廣告

딱 …

映畫俳優 志願者 手引書

映畫俳優協會出版部

裸體美人寫眞集

浮世繪美人版畫集

治淋特效

藥劑變換療法의新発見!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米國紐育·天津·台北

包裝 24錠 (全國有名藥房販賣)

治淋特效藥 チ-ユ-サイ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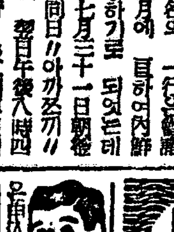
特異体質用 特性チ-ユ-サイド

效果本位

62-40,6

男子 早漏

大學藥院



警察官 講義合部全書

鮮滿警察學會

婦人科の諸病に

新製 美神丸

新發明 외가진高級婦人藥!!

大阪市 本舖 宮內醫藥堂

衛生大掃除에는

強性強精藥

東亞公司

松富 ミルク キャラメル 京城菓子株式會社

內科 小兒科 醫學博士 姜聲郁

京城仁寺町一七九 姜內科醫院 電光四二六五番

가려움이멋고 아픔消去!

皮膚病에는 ヒンター

皮膚病良藥 一步進步된

本舖 守田治兵衛

간질

大觀堂

中部版

米買出票僞造、詐欺 五十五件을摘發
永登浦署斷然嚴罰方針

【永登浦】지난달이십육일부터 ... [illegible]

七七記念日 業來施行事決定

[illegible]

中朝鮮蹴球大會
本報麟蹄支局後援下

[illegible]

一夜三處襲擊한 强盜犯遂逮捕

[illegible]

糧米在庫調査
警察과面當局協力下

[illegible]

都賣市場賣上高

[illegible]

翁壻間싸우다 사위를亂刺

[illegible]

元山에害虫猖獗
一帶農作物被害莫大

[illegible]

病弱接客業者 喀痰檢査後處置

[illegible]

釜山、馬山、晋州에도 來中旬外米配給

[illegible]

漁化島民陳情에 道當局愼重考慮
海苔檢査所設置問題

[illegible]

夏期講習會開催

[illegible]

商人도移秧助力

[illegible]

故金鍾植氏永眠

[illegible]

仁川의傳染病患者 五日間十二名發生
衛生當局全府民에게再次注射實施

【仁川】인천에 위개서 ... [illegible]

仁川에木炭飢饉
各料亭、飲食店大困境

【仁川】작년겨울에는 ... [illegible]

會寧、雄基間 뻐스料金引下

[illegible]

氏創定講演會

[illegible]

東部移秧은九割

[illegible]

月井里에大雨 陽川橋流失

[illegible]

江陵에酷暑 二日卅六度一分示現

[illegible]

石城川의氾濫으로 扶餘論山間交通杜絶
石城、光石間白米突이浸水되어

[illegible]

青年鐵道自殺

[illegible]

大田서防空訓練

[illegible]

敵性國家擊攘大會
今夜仁川公會堂에서 十八萬府民은잇지말고 오라!

[illegible]

道路修繕을命令
咸南道初有의不得已한處事

[illegible]

元山에도豪雨 雨量은七十二粍

[illegible]

勞務者住宅建築에 資金融通方法通牒
黃海道、總督府方針에依해勸獎

【黃海道】황해도에서는 ... [illegible]

襄陽에豪雨暴注

[illegible]

每月十日을期해 府內米屋總休業
仁川署節米對策으로

【仁川】인천서 경제계와 ... [illegible]

仁川公會堂構內 氷商取締要望

[illegible]

素砂水蜜桃 霖雨로二割減少

[illegible]

故下村上等兵 府民葬으로執行

[illegible]

自動車運轉手 合格者發表

[illegible]

登山"코-스"修築
大田中學서夏休利用해

[illegible]

經濟統制協力會 九日役員會開催

[illegible]

파라建築을計畫

[illegible]

霖雨繼續으로 氷菓商이悲鳴

[illegible]

移秧에助力코저 學生部隊를動員

[illegible]

三個映畫常設館 入場者半減報告

[illegible]

精神病들린親母
愛兒를물동이에너허죽여 永登浦署犯人嚴調中

【永登浦】영등포경찰서관내에 ... [illegible]

安州서在庫米調査

[illegible]

小白山探勝記
宋 憙 書 大田支局記者

幽邃한谿谷속에 莊嚴한喜方瀑布
林道開拓은조코도나뿐일 ③

[illegible]

(사진은희방폭포)

"持久戰勝敗의鍵은 思想戰에잇다!"
竹內忠南警察部長談發表

[illegible]

結核
ツベローゲン
醫學博士成田夬介先生創製 肋、腹膜炎特殊注射劑
1. 結核病變의進行을抑制하며自然治癒를促進함
2. 赤血球沈降速度를迅速히正常히復함
3. 新陳代謝機能을旺盛케하야抵抗力을强化하며心身을爽快케하야食慾倍加效를得함
4. 喀痰量減少·咳嗽의緩和·盜汗抑止에特効함
5. 胸部痛·壓迫感을除去하며解熱鎭靜作用이有함
植村製藥所

弱体强化 精力增進
ビオトーン
참으로眞正한補藥
身體細胞의活力을根本으로昂進하여 食慾을倍加하며 身心의疲勞를癒하여血液을增殖함
身心의過勞 腺病體質 神經衰弱 結核諸症 病後恢復 스포-츠前後 貧血冷症 性的減退
成分 有機性アルゼン ビタミンADE グアヤコール マンガン ストリキニーネ 次亞燐酸カルシウム 芳香性シロップ
用量 一日三回 五瓦宛
國産ワクト
植村製藥所 東京 京城 大阪

長篇小說 靑春茂盛 (97)

李泰俊 作 · 鄭玄雄 畫

최득주의 것은 없는(七)

「뭐래 어게?」

득주는 짓궂게 치약을 묵지며 다시 묻는다

「어딘 이런 심리 우습거운」 하고 나미짱은 멀리 한곳으로 한숨을 쉰다

「뭐래? 이거 묵근거 보니까 사지 오래가로군그래?」

「작년여름에 미스꼬시 갔다가 아이양복이 어찌 이뻐던지… 옷여름으로 입힐수 잇을것 같었는데……」

「아이양복!」

득주도 가슴이 찌르르한다

「언니한테 말이지……혹 손님들이 저이 아이들을 뵐 사든걸 복 치가 부르르 떨리곤해서…그런 에비두 없는걸? 허구 십십헙 나가서 작나가서면 사왔드래두……」

「그래 저걸 산수로 가지구가나?」

가되어서 「라구눈깽」이니 할다석은 어 어린이의 무덤 생각하면 무엇하러 이런 생명이 태여나는지 알수가 업다.

자기의식(自己意識)이란 깨닷기 전에 죽었스니까 죽은 아이그자체는 행복이니 불행이니 가리킬수 없겠지만 어미의가슴에는 일생을 두고 가시지안을 기픈 상처를 파노흔것이다

「어제 사람들 무의미한 과거를 위해 일생을 두고 괴로워해야나?」

창공에 뜬 구름는 말이 업시 흐른다.

「사람들? 배짓헙 운명이니, 내세(來世)니한다. 우숫는 큰 무의미(無意味)의실재(實在)니그렇이지뭐나?」

히선은 봇고, 득주는 멍ー허니 안저 구름만 바라보았다.

득주도 울고서피지나다.

득주는 한동안으로 히선을일으켰다.

「무더울테야」 하고 나미짱은 목이 메여 돌아서버린다.

이런 나미짱이 조반이나 제대로 먹고 나섯슬것 같지 안허, 득주는 얼른 손쉬운 반찬을 몇가지 채리게하고 나미짱을 달래여 가치 먹고 나섯다.

득주는 한번 보지도못한 나미짱의 아이를, 어머니를 닮엇스면 이쁘게 생겻스려니 상상하면서 그아이의 혼령을 위해 주는 꽃을꼬고, 저이 어머니는 양복을 들고 전차로, 빠쓰로미아리묘지에 다다렀슬때에는 멀ー리 시내에서 오정소리가 울려왓다.

해변에 조개껍질처럼 널린 무덤들, 해변가트면 파도소리나잇지 엄숙하도록 고요할뿐이다.

봉석이 하나를 넘어 멀ー리 삼각산연봉이 바라뵈는 중턱에 조고마한 새무덤하나가 차저진다. 나미짱은 그만 풀석 업드러지고만다.

묘표는 나미짱의글씨 가락다 『고배연진지묘(故白燕珍之墓)』니라 씨여 잇고 뒤에묘주(墓主)는 이홀은 백히선(白熙善)으로되여 잇다.

백히선은 나미짱의본이름이다 인생부사(人生斷詞)중에 가장 쓰라린 사생아(私生兒)란 꽃지가 부터 남편의 어머니의 성을 가저고 그러나 어머니의품은 모르고 서둘한 남의전부대신 묘한다

우름을 진정하게 하고사 자기가 사무질로 다시 나려와펭이를 어더다가 영능을 살사채 못고, 꽃을 땅에 꼿고 물을떠다 주고, 히선을 강제로 끌다시피해가지고 산을 나려왓다.

이날밤, 득주는 한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왓스나 잠이 오지안헛다. 이생각 저생각하다가, 공책을 내여노코 거울을 도려다보며 자기얼굴을 그려보앗다 비슷하게 되엿다 그려진얼굴을 중심으로 이런낙서를 시작해본다

『이름은? 최득주

나이? 삼십보다 아직 이십넌이다

얼굴은? 글세…이얼굴보다 나은 사람보다는 못한 사람이 더 만허리라

건강은? 약간의 허스를 인정한다 위선성에문에 투서를 난것 가른 끼니를 제때안먹어버릇해 그러지(꼬먹어가만키)아조 신경질적인 조짐증이 자조이다

장점은? 남의속 잘도려다보는 것 어떤 경우에서나 약한사람 불행한 사람의 편이되고 시프 몬저의을 위해선 어떤 수단이든 부릴사신을 가진것

단점은? 경우따러서는 장점의 모든것을.

이런 너는 이세상에서 무엇을 해볼수잇는가?』

득주는 이따답은 얼 쓰지 못한다

揭示板

浪花館變裝 東寶步合館으로

동보(東寶)의 「폐칸토」판으로서 대도(大都)의 작품파양화를 병영해오던 부내명치정 낭화관(浪花館)은 내부의개방장치의 완성을 기다리어 지난일일부터 동보(東寶)의 보합계약이되여 동보영화의 양화의 상영관이 되어 새운로출발하게되엇다

野談 古怪美人 ⑤

車靑吾

울지문덕은 그러케 적군을 유인하여 평양성 삼십리밖까지 끌어드려다 노코 가진 계획을 다 써서 혹은 기병(騎兵)으로 밤겨도 하고 혹은 또 사항사(詐降)를 보내서 적에게 항복할 의사를 보이기도하고 또 일방으로는 진지(陣地)를 와성함을 굳게쳐서 지구전할 기세도 뵈이니 적군도 그제와서는 울지문덕의 계책에 빠지고 또 고구려를 그러케 용이하게 항복밧지 못할것을 깨닷고 만흔 후편에 그대로 무명색하게도 퇴군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양편으로 진리하기의 나중에

처하엿다. 그러한중에 적군편에는 또 이상한 중대사건이생겻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적장 우문술(宇文述)의 심복 장수 십이장군(十二將軍)이가 각각 수하병 삼십여명씩을 거느리고 고구려로 무조건하고 귀화함이엇다. 그일의 꽁상은 전혀 무더장군의 진중에 숨어잇는녹족부인의 묘책으로 지어진것이엇다. 그일의 전말은 대강이러하다 청중에 적군이 살수(薩水)를 건너 처드러올때에 고구려서울에는 누가먼저 전파한 말인지 알수업스나 이러한 말이ー하루떠돌앗다.

적장 우문술의 선봉대에는 일태동생의 십이형제장군이 잇는데 발이 모두 사슴의 발가치 생겨서 별명을록족장군(鹿足將軍)이라하고 또 그들은 원래에 고구려사람으로 무용이 절륙하여 누구나 감이 대항하는자가업는터인데 고구려에서 만일 그십이장군만 다시 귀화를 시킨다면 그의적군은 비록 백만대군이라도 아무겁지도 얻다는것이엇다. 그이야기는 어느듯 군사정맏의 입을 거처서 울지문덕의 귀에 도러갓다.

그 이야기를 심상하게듯지안흔 울지문덕은 즉시 또비밀하게 적진에 사람을 보내 그사실을 탐문한즉 과연 어언 아니엿다.

군중에서 무슨 중대한일이 잇슬때마다 녹족부인과 서로 의론하는 문덕장군은 그일에 대해서도 또한 문의하엿다. 다른때에는 일분정당으로 대답을 잘하던 녹족부인도 이상하게 이번에는 아모대답이 업고 양미간에는 별안간 수심이 떠돌앗다. 문덕은 부인을 향하여 그의 대답을 독촉하는데 이러케 뮐 란하엿다.

『누구든지 만일 그자들을 귀화시킬수만 잇다면 나라에 그 공이 적지안흘터인데……』

그의말이 끗나자ー 녹족부인은 『쉬ー』하고 한숨을 한번 쉬더니 혼자하는 말가치

『그것들이 내자식이나 아닌가 일태 십이형제란 말넓게 발이 사슴의 발과 갓다는 말을 들으면 빗드도 하지만은 바다에 버린 어린자식이 살아낫슬수가 잇나……』

하고 또 한숨을쉬엿다.

그 말을 들은 울지문덕은 크게 기뻐하며 손으로 땅을 울리며 부인에게말하되

『올지 올지 인제는 되엇소. 이것은 하늘이 우리 나라를 도웁느라고 그리된 것이요. 내가 처음에 부인의 내력담을 들엇을때에 퍽 이상히 여겻더니 이제 적장의 이야기를 들으매 부인의일과 꼭가트니 그것이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이겟소. 일의 성불성은 알수업스나 부인께서는 이시기에 나라를위하고 아들도 차질겸하여 한번 적진과 수왕을 다 써보시지요.』

부인도 그럴듯이 생각하고 문덕장군과 다시 여차여차히 하자는 약속을하고 남자로 변장하고 적진을향하여가섯다.

그것은 역시 그가 고구려의 청화사(請和使)라 사칭하고 적진에가서 먼저적군의 선봉장인 십이녹족장군을 차자보고 항복귀화를 시키려는것이엇다.

그때 적진에서는 고구려에 저지 항복한다는데 여려번 속아넘여 잣기때문에 그도 물론 신용은 하지안코 적군은 원체 피곤하고 창중에 진저리가 낫기때문에 자기네의 체면만 과히 손상되지안는 정도이면 속히 강화를 하고 돌아가려고 이편에서 청화(請和)를하나 구화(求和)의 명목을 가지고가는사절(使節)이 잇다면어떠한든지 환영하는터이라 이번 녹족부인이 가는데도 어느곳의소청대로 우문술의 선봉장 녹족장군을 강화사절(講和使節)으로 내세우고 또그 회견처도 이편소청대로 적군의 대본영으로하지안코 적군 적진지와 우리진지에 중간에잇는 노하대(陣營幕)로 정하게 되엿든것이다.

이 회견이야말로 천재에 기이한 회견이엇다. 어떠면에서는 강화보다도 더 큰 계획이 잇기때문에 특히 녹족부인을 보내고 또 저편에서는 녹족장군을 청한것이다마는 저편에서는 게회이 업시 그냥 외에다 물론 이면의 인물이엇던 인물인것도 몰랏던 것이다.

회견하는 벽두에, 서편에서는 그저심상하게 먼저이편의 요구하는 강화조건의 내용서를 바더보고 심히냉소하는태도로

『이런 조건을 가지고서야 어찌 피차의 회의가 성립될수잇소』

하며 단번에 교섭을 박차 버렷다. 녹족부인은 천연한 태도로

『귀국은 천하 강국이요 우리나라는 천하약국이라 귀국이 요구하는조건을 아니들을수는 업지만은 그래도 조금이어 너무 가혹하다면 도리어 상서롭지못한것인즉 귀국에서는 크게 아량을 가지고 양국의 영구평화 행복을 위하여 한번좀 양보하심이 어떠할까요.』

하니 적장은 아모런 대답이엇시 그저

『글세ー요.』

하는 말뿐이엇다.

趣味와娛樂

大衆과娛樂

▼…흔히들 어디서나 친구를 만나면 하는 인사가 『그래요새재미가어떤가?』 하는것이 보통들하는 뫼차간의 인사다. 그러면 『뭐, 별재미잇나 를 내야 그저 그러치.』

혜버리는것이 못는사람에게다한 어면의대답이된다.

▼…이러케 서로 잣긴 만나서 주고받는 대화속에서도 우리는 생각해보면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그날그날의 생활이 너무이 기게적이라는것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그무슨 남다른재미나 오락을 가지고잇어야겟다는것을 스스로 고백하지안흘수업는 자신을 발견하게되는것이다.

▼…흔히 여기에는 계급에따라서 교양에따라서 현저한 차이도잇겟지만은 일반대중의 부락으로 눈을돌리고 귀를기우려볼때 그들의 그날그날의 생활이 혹은 생활의 맛바다이 너무도 건조무미하다는것을 우리는 우선 그들의입을 빌드라도 여실히 느낄수잇는 것이다.

▼…왜 그들은 별재미를 모른고 지내야 되는가 이러한 이미 지나간 생각보다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떠케 하면 그들로하여금 『요새 좀 재미 조쿤, 자네 나 재미 조흔 얘기 좀 들어보려나ー』 어떠한 소리를 나오게할수 잇슬까하는 여기에 대한최대의 생각을 해보려는 것이다.

▼…오늘의 극장의 요음이나 또 여의 비슷한 흥행들의 엽장들(수지상 그러케 하지안흐면 안되게지만)빗살대로 빗사다. 그러니까 조화권해서는 일반대중의 시간을 만족시키기에는 넘치하기가 흠 만타 그러나 그러타고 엽장들 감하하라는 말도 우리는아모 거청하지 할수업는것도 사실이다.

▼…모든 문제는 어런데 잇지안흘가. 우리는 어떠한소극적인 일면만을 생각할게 아니라 좀더 여기서 능동적으로 스스로에 가서 대중의 오락이라는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거기에 의무를 느끼여야 한다.

▼…여기에 오락을 수단으로서는 우선지금에 우리가 생각할수 잇는것이라다오면 라는것을이다. 그리고 음악회나 공개영사회나 야외극을 할수도잇는것인듯이다. 그래도 대중의 입으로부터 설혹 아무것도 업다하더래도 『뭐, 별재미가 잇나……』 하는 소리가 나오지안도록 위해서는 얼마든지 적극적 방법이 엇지안흘까. (猛)

銀幕의夏季攻勢 封切待機中의洋畫陣 (晃)

우에서 이미소개한 여섯 작품외에 다시 『스룩』으로서 세작품을볼수가 잇다 차례대로 가단히 이것을 소개해 나가기로 하자ー

『레베카』(셀즈닉·푸로) 이것은 이미 문단적으로도 이름이잇는 「다푸닌·듀·모ー리에」의유명한 소설 『레베카』를 영화화한것으로서 영화적으로도 상당히 성공하고잇다 주연은 『로ー렌스·올리비에』와 『조안·폰타인』이고 감독은 역시 『헐리웃트』에서도맹장축에 드는 『알프렛·히치콕』이다. 내용은 젊은남녀 흔히 잇슬수잇는 사랑과 번민을 그린것으로결말에가서 통속적해결을 하지안헛다는데 이영화의매력이잇다.

★颱風(파라마운트) 오래간만에 보는 남해(南海)를 배경으로한 해양극이다. 그러나 해양극이라느니보다도 차라리 이것은 남양(南洋)의 정열적인 『스캔들』이라는것이 더 올흘것이다 조금도 거짓이업고 꾸밈이 업시, 다만 씩씩하게 인간다웁게 차우고 사랑하는 정열과 이야기가 이 작품에 전편을 유의의 『괴톨』가치 본치를다. 주연은 『도로지ー라무어』고 조연은 『로버ー트·프레스톤』이며 감독은 『클레이즈 킴슨』이다.

幼影의馬車

전번에 어곳에서 어미자세히 소개한바와 가치 이 작품은 거중 『쥴리앙·듀비비에』의 야심작이다

일숙이 『빅토ー씨스트롬』에 의해서 영화화된 일이 는 명작 『영혼의불멸』을다 시둑ー토ー키ー로 제작한것인것만큼 기대되는바가만다 환영의 마차를 부리는 마부에 현재 불란서 영화계의 명배우 『루이·주ー베ー』가 분장하고 『미쉬리느·프랑세』가 구세군의 여사관으로 『피에르·프레네이』가 『론덴』으로 분장하여각각 조흔 연기를보여주고잇다 감독으로 보든지 연기자의 진용으로 보아서든지 이 『환영의마차』는 열마큼 기대를 가저도 무방하리라 생각되는 가흥의 수화이다

▲『카풀리』作品에 『스탄빅』登場

『로버ー트·리스킨』『프랭크·카프라ー』의공동 『푸로』와 『와ー너ー』의 제휴 제일회작 『거리ー후ー퍼ー』 주연의 『쇼도후시의 세연』의 상대역은 『올리비아·디·하비란드』의 예정을 변경하여 『바ー바라·스탄빅』으로결정되엇다 『스탄빅』과 『카프라』 이것에 처녀단가만난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레베카』의 一場面

試寫評

★올림픽記錄映畫 民族의祭典 (第一部)

★「리ー펜슈타ー르」女史總指揮

●生Q黃●

현재 독일영화계가 가진 유일의 여감독 『레니·리ー펜슈타ー르』 여사가 정부의 위촉을바다서 마흔대명의 우수한 『카메라맨』을동원시키어가지고 지난 일천구백삼십육년 백림(伯林)에서 개최된 『올림픽』의전모를 이부로나누어 제작하엿는데 그주제일부가 『민족의제전』이다.

『민족의제전』을 보아가면서 더욱절실하게 느끼켯든것은 무엇보다도 치밀한구상(構想)으로부터 오는 박력이엇다. 이것은 요즘 우리의 영화게에서 흔히들 말하는 단순한 『씨ー퀜스』의 연락이란 개념으로 바꾸어노하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그들의 풍부한 소재(素材)를 불과하지가 반년 지던 사이에 경기의 『클라이막스』는물론 『스타디움』의 움과 감격까지를 빠르리지안코 회면사이에 정이너리는 감독의 여유잇는 솜씨에는 시금 놀랏다.

× ×

물론 이것을우수한 『렌즈』의 힘이라고도 모른다. 풍부한 비용과 다수히 동원된 기술적인 영화인의 조력의 덕이라고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것보다도 우리는 제일먼저 『민족의제전』이 성공한 이유로서 지적할것은 하나의 인간의 자랑에 잇는것이다 그것은 감독 『리ー펜슈타ー르』 여사의투사의 한 어디 저력이다.

전편에서도 『마라손』 경기의 『리ー펜슈타ー르』 여사의 필적을 엿볼수잇는것이다. 우리는 『리ー펜슈타ー르』를 한 여감독이라고보다 『머리』의 제작자로 그를 우러러 보지안코는 그대로 못하는 예술가를 흠모하지안흘수업는 파화자로대우하고 시픈 것이다.

경기에 참가한 각국의 『선수』을 조금도 그 표현이나 묘사에 잇서서 경중을 두지안코 지극히 공평하엿다는데 우리는 다시금 그를 재작자로서의 분열하게되엇다 인간 『리ー펜슈타ー르』의 일면을 엿보게되엿다.

× × ×

최초의 서곡인 희랍(希臘)의 고적의 묘사 성화(聖火)의 『리레ー』의 묘사가튼것을 조금도 지리한 감을 주지안코 흥미잇게 보게 해준것은 『오버랩』의 힘이엇다. 일천 오백 『미ー터』이나일만 『미ー터』의중거리(中距離)를 단지간에 그 『오버랩』의 자연스러운 성공함이 또한 『영희』의 한 예이며 그다음 『마라손』 경기의 『클라이막스』는 가장 『리듬』하게 조직되어 잇는 것이다.

그리고 끗트머리에 『민족의 제전』의 『해답』이라고도 할만한 『에필로그』는 제작자의 구상을 인상적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미래에 가장 인류애에 반한 『민족의제전』이 영화가 가진 자랑이 아닐까.

『민족의제전』은 단순히 기록영화로서의 가치만을 요구하는것이 아니고 이미 문화적인 사적(史的)으로서의 의의를 띄고잇다는데 우리의교양은 일치해야 될것이다.

(사진은 올림픽에 出場한 우리 選手의 雄姿와 「리ー펜슈타ー르」女史와 감독이 第一着으로 들어온 勝利의 「테ー프」를 끈는 孫基禎選手의 雄姿)

라디오

『童話』(六日午後六時半) 동무의義理 崔益善

「동무의義理」라고 했읍니다마는 사실은 소년소설이라고 보는것이 올켓을것 갓습니다. 내용은 지난 유월이십사일 본보 사회면에 『주검을 초월한 우정! 방울꼬를 구하려다가 세명이 구몰! 대구(大邱)부내 히도(日道)소학교 오학생 원족중의사!』라고 발표된 기사를 줄거리로하고서 지어본 것입니다.

고 괴가 뛰는 이야기입니다 동무를 구하기위하여서는 목숨도 애끼지안코 사나운 물속으로 뛰어든 소년은 어떠케된것이며 그들은 과연 누구엿을까요?

婦人時間 (六日午前十一時二十分) 여름化粧 趙龍安

여름을 당하엿스니 오늘은녹성하와 「화장」에대한 말슴을다음과 가튼 조목에 나누어 해볼까합니다.

一、여름과화장의관계
二、열공화장
三、메둘리용화장
四、어름마찰법
五、목욕을하실때
六、머리가려우실때
七、면도하실때

放送 JODK

六日(土)

▲午前六時 (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同一一時三〇分 婦人時間『여름化粧』 趙龍安
▲正午(東)時報 오늘의메모
▲午後零時五分 吹奏樂(레코ー드)
▲同零時三〇分 뉴ー스 職業紹介
▲同四時 뉴ー스
▲同六時三〇分 童話『동무의義理』 崔益善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週間時報
▲同七時三〇分 뉴ー스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支那事變第三週年記念日을當하여』 每日新報社長 崔麟
▲同八時二〇分 講演『京城府民總動員防空訓練實施에對하여』 警務局長 三橋孝一郞
▲同八時三〇分 新民謠 一、天安三巨里 二、늴니리야 三、梁山道 四、密陽아리랑 五、박아打鈴 (譯)西村眞太郞 伴奏 京城放送管絃樂團
▲同八時五〇分 歌詞 一、處士歌 二、竹枝詞 大笒 金永根 杖鼓 金寧海 歌 李炳星
▲同九時一〇分 新作이야기『哀想曲』 朴昌遠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 時報 뉴ー스·氣象通報·라디오메모·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七日(日)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正午(東) 時報 默禱 오늘의메모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午後零時六分(東) 合唱 一、愛國行進曲 內閣情報部撰定 二、白銀의日章의太刀 三、麥秋 四、空中의勇者 五、大日本歌 東京音樂學校 日本放送合唱團
▲同九時一五分 混聲合唱 一、愛國行進曲 內閣情報部撰定 二、大陸行進曲 三、太平洋行進曲 海軍省撰定 四、白鳥混聲合唱團 京城放送管絃樂團
▲同八時四五分 浪花節『嗚呼李仁錫上等兵』 崔八根
▲同八時二〇分 支那事變第三周年記念日에際하여 朝鮮軍司令官 …
▲同九時三〇分 뉴ー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ー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ー스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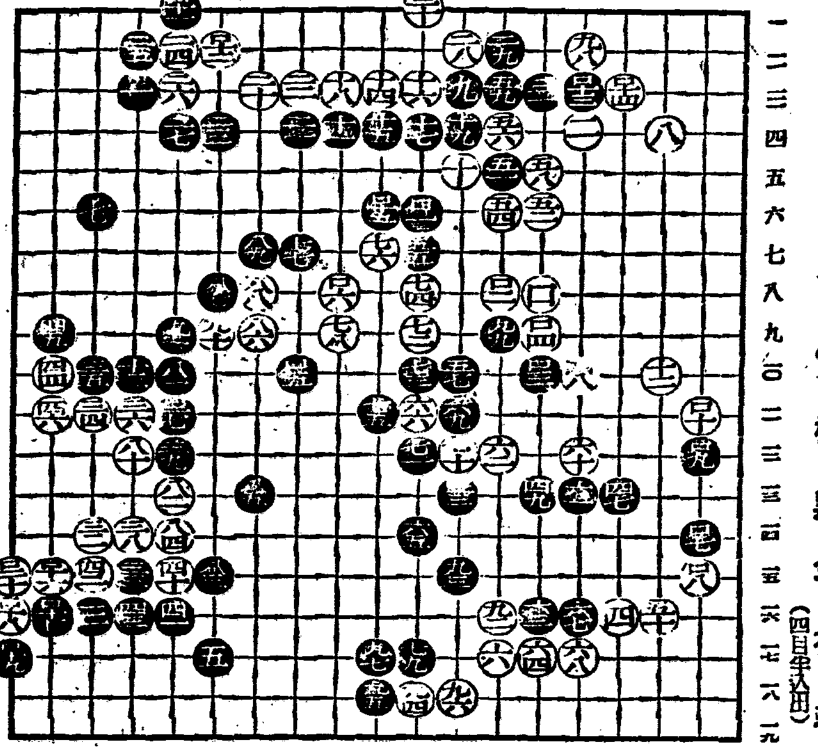
▲午後零時六分(東) 合唱
▲同一時 …
▲同六時三〇分 라디오風景
▲同七時 講演
▲同九時(東)浪花節

新人名碁譜

一局風塵이初歇 侵分工作에稍蠶食之

觀戰記 權秉郁

白 任佑植·黑 金在翊 【8】 (四目半入用)



兵家의 勝敗는 敵의 虛實을 먼저 偵察하여야만 必要하다。黑一〇五가 丑의 一〇에 붙인 것은 白으로 하여금 應戰을 주고 自陣을 保强한 바이다。白이 만약 子의 八로 응수를 받지 아니하면 羊腸九曲이 꼿여 가는 것이다。黑一〇七 白一〇八 또 乙의 一、乙의 一一로 마쳐

兩雄의 血力大戰도 엣날 慶으로 쉬고다시 侵分工作이 秋毫를 다투는 바이다。然觀 인저ー 黑一一은 辰의 一로 先着하니 끗내기에至精한 줄도 생각하노라。다음 戌의 三과 丁의 三은 一瀉千里的으로 잘 進行한다 그러나黑 一一五가 癸의 六은 그리될 成算수업다。何故오하면 旣往 後手를 둘바에는 左小隅の未 의 一五로 未然에 防備하여 스면 그얼마나조흘가……아마도 白五가 有望하리라。 次、申의 一〇까지는 黑의 손 빼는 功效를 奏하였다。

和信映畫館 二日ヨリ七日マデ 開館午前十時半 1、日本ニュース 2、小貓ノ戀戀 3、ミッキーのカーボーイ 4、ベティ迷ヒ猫 5、パティ空 中大冒險 6、ポパイ神士ニュース(?) 7、漫映ニュース 8、デパート小唄 9、パラマウントニュース 10、文化映畫 動物學藝會

大陸劇場 7月2日ー7日上映時間表 格子なき牢獄 10・30 ニュース 12・12 3・28 6・50 娘よ何故さからうか 12・25 3・42 7・03 格子なき牢獄 1・46 4・58 8・19 (冷房裝置完成)

東洋劇場 電光(二)一五四五番 李雲芳作 近日上演 待望의名劇感激巨篇 사랑의鋪道 金健作 悲劇 水仙花가치潔白한女性이 사랑을爲하여 한숨짓고 苦悶하는 多情多恨의女人 …

劇團高協 九月公開豫告 柳致眞作 北鎭開發 五幕八場 朴英鎬作 優美館近處 四幕

第一劇場 七月四日ヨリ三日間 超特作 虎鮫島脫獄 ワーナーバクスター グロリアスチュアート 東遊記 コロムビア超特作 熱血決死隊 チャールススタアレット メーリーブレーク 八日ヨリ 決死隊 ザーンの猛襲

京城寶塚劇場 黃金座改め ニュース 11・25 3・00 4・35 7・20 アステア ロヂャース踊作 11・26 3・10 4・45 7・30 大楠公 12・25 3・00 5・35 9・20 舞姬ザサ 10・00 1・25 3・10 5・45 8・40

若草東寶 7月2日よりの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0・30 1・25 4・15 7・10 だんだら繪卷 10・40 1・35 4・25 7・20 死鬪するルイスの 11・55 2・50 5・40 8・35 エノケンのワンワン大將 12・35 3・20 6・10 9・05 御通人の方は電車を御利用下さい

新富座 七月四日ー八日 大同商事提供 電話殺人事件 アイリーンプリングル アリス、ホワイト 松竹大船超特作 妹の晴着 水戶光子 德大寺伸 羽田登喜子 新興大作 樂しき我家 次郞・牛 霧月九段の母 キングソロモン

산뜻한讀物滿載 八月號 納凉特輯號 女性 三十錢 特價·送料二錢 來十五日發賣

優美館 七月六日より 特別大公開 大普通料金 二十錢均一 米マスコット社超特作 地球下の魔人 全十二卷中 後篇十三卷上映 ジンオートリ 主演 米フッタブロ超特作 トムキーン 主演 暗黑の支那 日本版 新興キネマ京都大作 戀愛劍法 大谷日出夫 主演

京劇 日本 七月五日ヨリ十一日マデ 第二の虹 新興京都超大作 花咲爺 短篇·ニュース 階下席 三〇錢

明治座 2日ー7日上映時間表 若者 10・00 1・20 4・38 7・57 進軍抄 11・20 2・40 5・58 9・17 廣東新九 13・06 3・26 6・50 日本パテーニュース 世界の窓 12・37 3・57 7・28 (冷房裝置完成)